

KBS - 제 1 라디오
이주향의 문화 포커스

방송일 : 2천4년 6월 9일 (수) 밤10시5분-11시
진행 : 이주향
연출 : 국은주
작가 : 이윤수

담당	차장	부장

시그널 + 타이틀

오프닝

안녕하십니까? 문화 포커스에 이주향입니다.
삼청동 가는 길목에 자리한 국제 화랑은
조형물 <걷는 여자>로 유명합니다.
빨간 티셔츠에 파란 바지를 입은 여인은,
마치 경사진 지붕을 질주하듯 오르고 있는데요,
그 경쾌함이 이 계절, 푸른 하늘과 썩 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광화문 홍국생명 앞엔 높이 22미터 규모의
망치질 하는 사람이란 조형물이 눈길을 끕니다.
거대한 사람이 1분 17초 간격으로
망치를 서서히 내리치는 설치조형물인데요.
작가는 실루엣으로 표현된 간결한 이미지와 망치질을 통해서
노동하는 현대인의 고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은 모두 세계적인 설치작가 조너선 보로프스키의
작품입니다.
이처럼 길을 걷는 동안, 우연히 만난 조형물을 통해서
고단한 생활을 접은 채 잠시 삶에 위안을 얻을 순 없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대형건축물 앞에 놓인 조형물들의
대부분은 넉넉한 위안처가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화관광부가 새 예술정책을 발표했죠.
특히 시각 예술 분야에선, 건물과 도시에 활력을 주는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를 공공성을 살리는 쪽으로
개선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사이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왔던 건축물 미술 장식제도의
공공미술제로의 변화, 오늘 문화를 이야기 합시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1>

<로고>

문화 이야기합니다

먼저 거리의 시민들에게 대형 건물앞에 놓여진
조형물을 어떻게 느끼는지, 이야길 들어봤습니다.

시민 인서트 //

들으신 것처럼, 빌딩마다 소방시설처럼 의무감으로 놓인
조형물들이 행여 시각공해의 주범인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생활하는 아파트 단지 안에
어떤 조형물이 놓여있는 지 눈 여겨 보셨습니까...
그것이 주민들의 삶엔 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걸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전화를 받습니다.
건축과 미술이 아름답게 만난 정말 의미 있는
조형물에 관한 개인적인 체험도 좋구요,
예술적 감흥과는 거리 멀게 건물 모퉁이에 불쌍사납게
놓여진 조형물이 시민들 곁에서 제대로 숨쉬는 작품이 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02-368-1001번에서 1004번까지 닉대의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되신 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서울 전화 368-100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제도에 관한 도움말씀을 위해서
미술평론가 성완경 인하대 교수를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기)

<수/2>

미술 장식품 제도의 개념과 역사

#.우선, 건축물 미술장식품 제도라는 용어부터
생경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 (개념정리)십층 이상 건물, 연면적 , 이상의 건물을 신축, 증축할 때 건축주가 건축비의 일정비율 만큼 돈을 들여서 미술품을 설치해야 준공 허가가 나오게 돼있어, 이때 현행 건축비의 0.7% 이상, 단 건물의 소재지나 종류, 규모에 따라서 차등 적용돼, 이렇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품을 가리키는 말...

#.거리 조형물 하면 아, 그거...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건축물 미술 장식품 제도라고 한 건, 개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 (공공 조형물&환경 조형물&건축물 미술 장식품과의 차이)서구에선 공공미술이란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돼, 공공지원금과 공공장소, 관객, 공공적 맥락의 내용, 시민참여 지향의목표 등에서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미술.우리의 경우 혼용돼 쓰이고, 건축법규에 의한 건축물 규제와 같은 방식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공공미술은 단지 건축물 허가와 준공 요건을 구성하는 단위이자 건축규제와 한가지로 규제되는 대상에 불과..

-. 조각작품 외에도 회화나 벽화 등 미술작품이 모두 해당, 그러나 국내에선 주로 조각에 편중돼 있어서 도시 전체의 조형미나 문화환경이 갖는 다양성, 포용성을 제대로살리고 있지 못한 형편..

-. 문패조각* 무리한 설치* 획일적* 작품의 질적수준* 내용* 가치의 문제등...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도가 도입된 건 언제부터였습니까?

-. (역사)1984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돼 전국 대도시에 지금까
<수/3>

지 적용되고 있어, 올해로 꼭 20년째...

- (취지) 도시 미관을 돕는다는 취지. 화랑이나 미술관에 가야 볼 수 있는 작가의 작품을 거리나 공공장소를 끌어내 시민들이 손쉽게 작품을 접할 수 있다는 좋은 취지..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 (시작부터 건축비의 1%였다가 99년부터 0.7%로 변화된 점)...
- 2천2년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747점에 515억원 상당의 작품이 만들어져, 작품당 평균 6,900만원꼴. 서울 시내에만 천수십개가 넘어. 우리 미술시장 총거래액의 20%에 해당하는 큰 규모, 자연히 근납비리와맛먹는 타락을 보여..
- (그밖에 조형물 설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가져온 변화)..

#.해외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하셨는데요, 외국의 경우도 우리처럼 도시미관을 위해 법안이 별도로 마련돼 있나요?

- (취지) 르네상스 이전부터 건축과 미술은 본래 한몸, 현대에 들어 공공미술이란 제도속에서 공식적으로 만나와...
- 현대적 개념의 공공미술이 시작된 곳은 30년대 미국, 실업문제해결을위해서 경제 공황기에 실직 예술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 환경 꾸미는데에 예술가들을 동원..
- 1951년 프랑스에서 교육부 건물 지을 때 건축비용의 1%를 미술 장식에 써야한다는 규정을 만들면서 오늘의 1%법안이 생겨나.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이 일상에서 이들 조형물들을 친숙하게 접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닐까요, 건물과의 부조화도 그렇고, 흉물처럼 놓여져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가 하면, 아이안고 있는 엄마나 가족상 같은 스타일의 작품을 어딜 가든 만날 수 있구요? 이 같은 문제점의 요인들을 꼼꼼히 살펴볼까요?

<수/4>

- . (건축주의 문화적 동기 부여의 문제)...
- . (거대한 비용을 둘러싼 브러커들의 부정과 비리) 영수증은 1억 원이지만 실제 거래가는 4천만원인 식의 무수한 편법이 동원된 현실. 그러다보니 누가 봐도 확연하게 수준 떨어지는 저질 작품도 태반...
- . (재원이 공공적인가의 문제) 제도를 만들면서 재원 조달의 책임은 건축주에게 떠넘겨. 공공미술품을 환경 미화나 장식의 수준으로 인식..
- . (관리 프로세스의 문제) 심의 제도는 요식 절차, 작품의 사후 관리도 없어, 홍보와 교육도 제도 개선과 보완을 위한 제대로된 실태 파악도 없어..

#.사실 이같은 관행에 관해선 오래전부터 문제제기가 있어 왔구요, 성완경 교수님을 비롯한 공공 미술에 관심 갖는 분들의 다양한 연구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십년전이나 지금이나 해결되지 않는 건, 무엇때문일까요?

- . (공공미술에의인식)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공공미술의 핵심적 준공에따른 요식절차의 수준, 상업화, 비리, 건물주의 문화적 동기부여가 약함, 관의 인식 부족과 관리 의지 부족, 전문가의 마인드 부족(지금껏 백서 발간된 적 없고)..
- . 미술인들의 공공미술에 대한 개념과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능력의 부족도 문제, 공공미술을 갤러리 아트가 공공공간으로 수평 이동한 수준의 미술로 이해하는 것이 문제, 중개상들의 손쉬운 먹거리 시장으로 전락, 점점 타락상을 보여..
- . 진정한 공공미술 개념 실종, 이대로 방치할 수 없어...

#.흔히 공공미술하면, 거대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란 이미지부터 <수/5>

떠올리거든요?

-.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공공미술에 관한 오해들)공공 미술작품들, 무내용이고 장식적이고 촌스럽고 고압적인 작품 많아, 갤러리용 작품을 규모만 크게 키운 작품도 문제, 관객과 대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작품, 주변 환경의 맥락을 진짜 고민하고 창조적으로 해결한 작품, 이런 작품이 흔치 않아, 미술인도 반성해야..

-. (비물질적, 관객참여형 작품들, 사회 비판 메시지 담은 작품, 교육*치유적 기능의 작품 언급)..

#.왜, 한때 포스코 건물앞에 서 있는 조각가 프랭크 스텔라의 작품 <아마벨>의 철거논란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철강회사앞에 웬 고철덩이가 있느냐 하는 논란까지 있었죠. 그렇다면 공공의 관점에서 기업과 미술작품의 관계가 조명됐어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현대인이 공공미술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표현하길 원하는지, 애매해, 기업미술, 미술관 미술, 거리의미술(공공미술)간의 개념 차이와 상관관계 언급)단순히 미술관 미술이 거리로 나앉는 것이 공공미술 아님, 기업은 작품 통해서 막연히 현대적이고 미학적인 것을 건물 외부에 세우고 싶어하지만, 실은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어떤 가치의 표현을 지향하는지 불분명, 이것이 공공미술의 가장 큰 난관...

새 예술정책속 공공미술제도&미술협회입장

*****전화 연결(016-362-6495)*****

건축물 미술 장식제도가 시행된지 올해로 스무해 짝니다.
참여정부 출범 후 문화관광부가 새예술정책의 일환으로
이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구체적인 안이 공청회를 통해 발표됐습니다.

<수/6>

미술계에 <뜨거운 이슈>로 부각된
공공미술제도는 과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를 맡았던 대안공간 풀의 디렉터인
미술 평론가 박찬경씨와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인사 나누기)

#.문화부의 공공미술정책,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주세요?

- . 현재 건축물의 경우 0.7%를 공공미술 설치에 지출하게 돼 있
는데 지방 문예진흥기금으로 건축비의 0.5%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 이를 현금으로 거둬 이를 기금화해 공공 전담기구를 통해
집행하자는 내용, 지금은 대형 건물의 미술품이 건물주의 사유
재산이면서도 시민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자산이지
만, 개정안대로라면 건축주가 일정뎁으로 0.5%를 내놓는다는 의미

#.공공미술 센터가 세워져야 한다는 대안도 발표됐죠?

- . 시민단체의 여론조사에서도 건축물 미술장식품에 관해 부정적
의견들이 나왔고, 작품 관리실태만 봐도 건축주는 세워 놓고도
관심이 없고, 시민들은 눈여겨보지도 않아. 이를 전담할 전문기
관이 없기 때문. 미국에선 공공시설청이 있고 지역마다 문화부
소관 아래 전문가그룹들이 있어. 공공미술을 코디네이터하고 감
리 평가하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미술설치를 전
담할 공공미술 센터와 별도의 지역별 심의위원회를 설립, 작가와
작품 데이터 베이스를 갖춘 뒤 공공장소에 이들의 작품을 설치한
다는 것...

#.이 제안의 가장 핵심은 어떤 점일까요?

- . (의미 부여) 그동안 폐단으로 지적돼온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
<수/7>

하고 건축물 치장에 한정된 미술 장식 개념을 도시 문화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개념으로 확장한다는 취지..

- . 공공미술제도의 도입으로 건축주에게 작품 설치비용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작가에게 공공미술 참여기회가 확대되는등 여러모로 장점이 있어...

#.그에 비해서 실효성의 문제가 지적되는 것 같아요, 과연 건축주가 그 돈을 내겠는가, 또 공공미술센터에서 또다른 리베이트 문제가 생겨나는 건 아닌가 우려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 .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의 취지는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자는 것. 공정하지 못한 절차 때문에 일부 작가에게만 일이 몰리고 여기에 중개수수료, 리베이트 때문에 일을 맡은 작가들도 덤핑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작품의 질이 떨어져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키는 실정..

- . 기금운영센터가 또 하나의 권력기관화된다고 우려하는데 그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지 무섭다고 미리 피할 일이 아님...

- . 건축주들이 낸 돈이 기금화되면 건축물을 세울 장소 선정에서부터 작품선정, 감리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 기획예산처나 감사기관의 감사도 받을 것..

#.미술계 안에서 충분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테구요, 이번 개선안은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반영되게 될까요?

- . (전망&바람)....

정부가 새예술정책의 일환으로 개선안을 선보인 공공미술제도.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 미술평론가인 대안공간 풀의 <수/8>

디렉터 박찬경씨와 만나봤습니다.

(인사 나누기)

#.성완경교수님, 이같은 정부의 정책에 관해 미술계의 입장은 상당히 다양한 편이죠?

-. (일반적인 입장)..

-. (이 제도의 가장 큰 수혜라자라고 할 기성 미술계 작가들)크게 반발하고 있고...

*****전화 연결(011-256-0504)*****

여기서 한국 미술협회의 공공미술 개선 대책위원장인 조각가 오형태씨와 전화로 만나봅니다.

(인사 나누기)

#.이 안에 대해서 미술협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미술인들의 일반적인 반응 소개)....

#.구체적으로 주요 현안을 살펴보기로 하죠?

-. (대책위에서 살핀 문제점 지적) 개인 건축물 앞에 세우는 미술품을 공공개념으로 본다는 것부터 반대. 현 제도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일. 공공미술전담 기구를 만들고 건축주들에게 돈을 내라고 하면 누가 응하겠는가. 설사 돈으로 낸다 해도 또 다른 탈법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시장규모만 축소되고 말 것..

-. 0.7%를 0.5%로 징수하자는 안 : 예술이 주는 정서적 영향이나 국가위상을 생각해서 지원을 높여서 2%로 증액, 유지관리보수에 신경써야해..

-. 현재의 개정안은 독자적인 예술인의 고유 권한을 무시하고 미 <수/9>

술인을 국가에 예속된 기능직으로 전락시키는 발상..

- .과거 정부에선 책임소재의 불분명과 또다른 부패의 온상이 될 것을 염려해서 수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문화부에서 특정 단체 특정 인맥이 주도하자 편파적으로 전격 수용하는 태세의문제..

- .소수에 의한 잣대로 작가를 관리한다는 것도 문제..

- . 예술작품의 법적 감리를 한다는 발상은 창의성과 독자성을 무시하고 사업자로 전락시킬 수 있고, 감리자의 영향에 따라서 작품이 획일화될 소지가 있어...

- .중계 수수료의 양성화는 취지는 좋지만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 별도의 법으로 제정해야해..

- .공공 미술 센터의 설립은 여러 장점이 있는 듯 보여도 가장 독소조항. 자유로운 창작의지의 말살...

#.그렇다면,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 (미협외 대안)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중개업체를 양성화해 등록제를 시행하되 등록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수수료율도 정하는 방안, 또 지자체 별로 운영되고 있는 심의위원 제도가 예술 파트와 무관한 사람들까지 들어간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문가그룹을 중심으로 전국 심의위원뱅크제 같은 것을 도입할 수 있어...

#.그동안 말은 무성했지만, 정작 합의가 도출된 건 없었잖습니까. 어찌면 이제 개선을 위한 논의의 단초가 마련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미술협회에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십니까?

- . (입장 소개)...

공공미술 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수/10>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창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한국 미술협회 공공미술 개선 대책위원장인
조각가 오형태씨를 만나봤습니다.
(인사 나누기)

지금 여러분께선 KBS 1라디오 이주향의 문화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최근 미술계의 핫이슈로 등장한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의
공공미술제도로의 전환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엔 미술 평론가 성완경 인하대 교수를
초대했구요.
청취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기다립니다.
어디 가보니, 이런 조형물은 대중속에 살아숨쉬더라 하는
지적도 좋구요,
새롭게 시안으로 제시된 정책에 관한 의견도 좋습니다.
서울 전화 368-1001번에서 4번까지 4번대의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연결되신 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공공미술제에 관하여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같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성완경 교수님, 개정안을 놓고
지금같은 갈등이 벌어지는 요인은 무엇때문일까요?

-. (갈등 원인과 양상에 관해) 먹이사슬, 불신, 근본적인 시각에
서 보는 자세..

<수/11>

#.오래전부터 공공미술 센터 같은 게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았어요?

-. (새로운 차원에서 공공미술의 제반 문제와진흥책을 연구하고 절차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비영리 공공재단의 설립의 중요성)브로커에 의한 담합을 막고, 작품 설치 계획을 발의 단계에서부터 예산, 현상 설계, 최종 작품 선정, 제작 설치,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문가적 안목으로 진행하는 전문적인 측면이 필요...

#.공공미술 센터에서 작품구입이나 설치를 대신 할 경우, 운영의 문제가 걱정스럽다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입장 소개)공공미술도 이제는 형식적, 요식적 수준의 것이 아니라 지역 환경의 개선에 정말 섬세하게 대응해갈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이고 고품질화된 기획의 소산이어야할 필요가 있어. 환경을 정말 전문가의 관점에서 깊숙이 들여다보고 고민하며 예술과 환경의 진짜 창조적인 결합을 기획해내는 책임 있고 안목 있는 전문가의 개입이 절대 필요...

#.그동안 미술인이 적극 나서서 해야할 일들이, 중개인에게 떠밀려서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차원에서 주도하는 공공미술 센터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입장 소개)보다 중요한 것은 건물에 관련된 아트 프로젝트에서 미술인과 건축가의 창조적 협업의 문제. 화랑 같은 중개인의 중재가 필수인가도 잘 생각해봐야. 미술가는 지금보다 더 건물에 직접 관계되어야. 건축 프로젝트의 현장에, 그것의 과정과 기술에, 그리고 그것이 현장적으로 제공하는 가능성과 제약조건에 보다 더 직접 관계되어야. 직접 관계가 잘 안될 땐 적어도 그런 것을 배우려 해야 하고 또한 개입할 의지를 가져야...

<수/12>

해외 사례는...

*****전화 연결(010-5299-5272)*****

그렇다면, 공공미술의 관점에서 제도가 이루어지는
서구의 현실은 어떤지 알아보기로 하죠.

이 분야의 전문가인 숙명여대 문화관광학과 김세준 교수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인사 나누기)

#.미국의 경우는 공공미술 정책을 주관하는 기구가 따로
있죠?

-GSA가 미술 전문가들에 의한 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위원회가
설계 단계에서 건축가와 일차 협의를 해, 이 위원회엔 뉴욕시민
중에서 미술 애호가나 미술단체도 참여, 전문 위원이 건축 예정
지를 실지 답사하고,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미술가의 자료를 검토,
3~5명의 미술가를 지명하면 이 가운데 후보자와 예비후보를
선출, 작품 내용과 제작비에 대해 GSA가 미술인과 계약, 위촉받
은 작가가 제출한 작품 구상에 관해서 GSA와 설계자가 최종 검토
제작에 들어가, 전과정 통해 관의 개입 없이 모든 과정이 공개적

#.그렇게 공개적이더라도, 말썽의 소지는 있지 않을까요?

-. (주요 사례)...

#.미국의 예술기금과 달리 우리는 건축주가 건축비용의 0.5%를
내놓는다는 점, 국가가 공공미술 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이
문제다 하는 지적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공미술에 있어서 핵심사항 지적)....

<수/13>

#.미국의 사례와 달리 지금 우리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안으로 제기한 공공미술제에 관해선
서구의 사례에 비춰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운영돼야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입장 소개)....

공공미술제가 자리잡은 미국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도움말씀엔 숙명여대 문화관광학과 김세준 교수였습니다.
(인사 나누기)

#.서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라면 뭘까요?

-. (서구의 경우 사회성 짙은 저항적인 문화작업이나 젊은 작가
의 실험성 높은 작품이 공공기금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
어, 반면에 우리 유명작가의 작품만을 선호, 그나마 건물의 부속
장식물로 취급돼, 로비와 이면 계약으로 만신창이, 이제라도 미술
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노력 필요)....

#.대중들로부터 떨어진 작품들도 있지만, 반면에 건물과의
조화나 대중과의 소통속에서 오히려 되살아난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런 대표적인 작품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공공미술로서의 대표성을 갖는 몇작품 소개)....

청취자 의견을 듣습니다

(2~3통 연결)

<수/14>

바람직한 대안을 위하여

#.청취자 이야길 들어보셨는데요, 어떠세요?

-. (코멘트)....

#.협소한 장식적인 개념에 한정돼 있는 건축물 미술 장식 제도를 공공미술제도로 전환하려는 현안, 앞으로 어떤 과제를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까요?

-. (미흡한 가운데 미술계, 정부, 대중의 입장에서 각각 혹은 함께 머리 맞대고 풀어가야 할 과제와 대안 총정리)..

클로징

미술 작품이 건축물을 위해 놓여진 장식물이 아니라
공용 공간을 위한 공공의 미술로 전환될 때,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취지도 빛을 발할 테죠.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서, 창조적인
공공미술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지혜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오늘 문화를이야기 합시다에선,
참여정부의 새 예술정책안 속에 담겨 있는
공공미술 제도의 전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공공미술분야의 전문가, 미술 평론가 성완경 인하대 교수가
도움말씀을 주셨습니다. 늦은 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나누기)

저는 내일 밤 10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인사)

<수/15>